



즉시 배포용: 8/26/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뉴욕의 칼리지 학생에게 인터넷 이용을 위한 허위 신분증 구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다

가짜 신분증 매매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신원 절도로 이어질 수 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가을 학기를 위해 학교로 돌아오는 대학생들에게 가짜 신분증 구입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신분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차량부 소속 수사관들이 미성년 운전면허증 소지자 수십 명이 온라인으로 해외업체로부터 가짜 신분증을 구매한 후 신원 절도의 피해자가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신원 절도의 파급 효과는 수년 간 지속될 수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가짜 신분증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신들 역시 사기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즉시 가짜 신분증 사용으로 체포되고 자신의 금융 미래도 위협에 빠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피해자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범인들은 반복적으로 새로운 여신한도를 생성하여 은행과 퇴직계정에서 돈을 빼내가고, 일자리를 얻고, 거짓 납세신고를 하고, 심지어 병원 치료까지 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록, 이름, 삶을 회복하기가 극도로 어렵게 됩니다.

2014년도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Consumer Sentinel Network Data Book](#)에 따르면 신분증 절도 피해자의 18%가 20세 - 29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약 6%는 19세 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연령대는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거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신원 절도 모니터링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거나 소셜미디어 정보 공유 시 주의를 기울이거나 다른 연령대보다 신원 절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덜합니다.

뉴욕주 차량부 부장관인 **Terri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짜 신분증을 구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합니다. 이를 구매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상실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신분증 전체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분증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미국 및 해외 제조자로부터 가짜 신분증을 사는 행위는 21세까지 술을 구입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학생을 평생 나락으로 빠트릴 수 있습니다.”

SUNY의 Nancy L. Zimpher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 교환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뉴욕 주 소재 대학들에서 우리는 모든 SUNY 학생들에게 신원 안전을 위해 이러한 상품의 구입 및 사용을 자제하도록 촉구해나갈 것입니다.”

뉴욕주 차량부는 다양한 법집행 기관과의 단속 활동을 통해서 매년 21세 이하 청소년 수백 명을 가짜 서류 소지 혐의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수십 명은 신원 절도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 콘서트에서 15명이 가짜 신분증 소지 혐의로 차량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고, 이 중 세 명은 신분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위조범들이 이중 사회보장카드, 출생증명서, 신용카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정보를 통해 가짜 면허증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구매 혐의로 체포된 사람 중 대부분은 해외에 적을 둔 회사들로부터 인터넷으로 이들 서류를 구매하였습니다. 10여년 동안, 차량부와 연방 및 주 법집행기관의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가장 최근의 경우 ID Chief 웹사이트를 포함해 이들의 활동 자료를 파악하고 활동장소를 폐쇄하여 위조범들을 엄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차량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온 많은 업체들의 활동을 단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국무부 소비자보호국은 자신의 신원 또는 금융계좌가 위협에 처할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내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보호국의 신원절도예방및완화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보호, 컴퓨터의 현명한 사용, 청구서 및 신용카드 내역서 꼼꼼히 보기를 포함해 뉴욕주민들이 신원 절도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소비자 경보는 술집주인, 경비원, 허가사업장 직원들에게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허가증 및 ID 카드에 포함된 새로운 보안 사항에 대해 교육하도록 Cuomo 주지사의 8월 19일에 있었던 차량부와 뉴욕주 주류국 간의 협업 발표에 이어 나왔습니다. 새로운 ID 카드에 대한 보안 사항을 담은 브로셔는 [여기](#)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지사 발표 전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원 절도는 [2014년에 15년 연속](#) 연방통상위원회의 소비자 민원 범주에서 상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해 뉴욕주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거의 16,000건의 신원 절도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